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음 8월 2일) 제21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아-태 마스터스 전북 유치 자신감

송하진 도지사, 국제협회 카이 홀름 회장 등 만나
유치의사 전달... 카이 회장, "기회 있으면 방문"

전북도가 오는 2022년 생활체육의 올림픽으로 꼽히는 제2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대회 유치활동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유치홍보단은 연일 전북도 홍보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9일 오는 2021년 일본 월드컵마스터스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토시조 이도(Toshizo Ido) 효고현 지사와 간사이 경제연합회장 등을 만나 대한민국 전북도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이날 저녁 폐남 APMC주관 만찬장에서도 각국 임원들을 접촉하며 제2회 대회 전북도 유치 의사를 표명하며 관심과 지원을 유도했다.

또한, 10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마스터스 대회를 관장하는 국제마스터스협회(IMGA) 카이 홀름(Kai Holm) 회장과 사무총장을 만나 유치의사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규경기장 조성 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고품격화 시대에 맞는 생활체육대회 성격의 행사가 우리나라에 절실한 실정인데 바로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그에 부합하는 행사"라며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 평창올림픽때 국제기구 임원이자 IOC 패밀리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카이 홀름 회장은 "지난 6월 IMGa CEO인 에스홀름(Jens V. Holm)과 사만다 체육국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제안 여건을 살펴본 결과 아태마스터스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강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화답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전북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 등 유치단은 배드민턴과 탁구, 축구장, 태권도 등 주요 경기장 시설과 선수 수송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유치단은 폐남은 제주도의 2/3의 면적으로 관광, 경기장과의 근접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경기장 여건 등을 비교하면 현재 전북도에 시설로도 폐남 아태마스터스대회 경기장보다 여건이 낫다고 분석, 대회 유치와 인프라 확충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소비계층인 40~60세 참가자가 65% 이상 참가하며 연소득 1억 원이상 참가자가 58%이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가하는 대회이다.

송 지사는 "전북도가 개최예정면에서 총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귀국 후 대회 최종 유치를 위해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인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현재, 고창-부안 권한쟁의 심판 사건 현장점검

헌법재판소가 10일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현장점검을 펼쳤다. (관련기사 8면)

이 사건은 서남해 해상에 25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시설 공유수면(쟁송해역)을 놓고 인접 지자체간 관할 분쟁이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2년전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의 현장인 위도 대리항과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이옥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창덕궁 부용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리야나 여사.

인프라 · 주요산업 협력 확대, 신남방정책 지도도 재확인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철도 · 역세권 개발 · 정보통신 등 분야서 실질협력 증진
양국간 청년 교류 강화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도 신설
경제 · 출입국 · 해양안보 등 6건 협력 강화 약정도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1시간40분 가량 진행했다.

이날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기로 뜻을 모으며 인프라 및 주요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40분 가량 조코위 대통령과 일부 수방위원 배석한 소규모 회담을 가졌다. 이어 오후 3시40분께부터 1시간 가량 양측 모든 공식 수행원이 함께하는 비공개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앞서 양국이 합의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맞게 실질적인 협력을 내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두 나라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바 있다.

양 정상은 먼저 경전철(LRT)과 수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와 철강, 석유 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로 이뤄지고 있는 양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현재 한국 컨소시엄은 자카르타 LRT 1단계(5.8km) 벨로드롬 경기장역~플리빠가당역 구간 건설에 참여 중에 있으며, 2단계 3단계 사업 수주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철도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 역량강화 관련 협력사업도 추진하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잠수함 공동생산 등 방산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 · 제도 구축과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사행정 ▲법제 ▲전자정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적 ·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과 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설립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도 신설하기로 했

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젊은 세대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양 정상은 유엔(UN)이나 미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 활발히 하기로 하면서도 해양, 환경, 해양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상호 공관을 두고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경제 · 출입국 · 산업혁신연구 · 해양안보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확대회담 종료 직후 협정 서명식에는 경제 · 출입국 · 산업혁신연구 · 해양안보 · 법제 · 인사행정 분야 협력에 대한 6건의 협력 약정이 이뤄졌다. 각 MOU마다 관계 부처 장관이 서명에 참여했다. /뉴스1

메르스의 의심 격리 우즈베크인 '음성' 판정

전북지역에서 이달 초 사우디 아라비아를 다녀온 한 외국인이 메르스 증상으로 음압병상에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기침을 동반한 음성 환자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마디나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우즈베크스탄인 A씨(40)가 이달 1일 기침과 근육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아 기관지염 처방을 받았으나 열흘 가량 증상이 이어져 10일 오전 전북대학교 음압격리병상에 긴급 입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두바이 아부다비 공항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지난달 30일 입국했다.

한편, 이날 기준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돼 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환자인 60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탄 전북지역 일상접촉자인 B씨(27·익산)는 노출 4일째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호철 기자

본사 인사

▲장은성 임:차장대우 명:편집국 교육부

(9월 10일자)

축! 전주매일 창간

Real Fresh 참프레 CHARMFRE

스트레스 받지 않아 참 건강한 닭!

동물복지 닭고기 최초·최대 기업 참프레

동물복지 농장주 김재훈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주)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Tel.063-580-6000 홈페이지 www.charmfre.co.kr 쇼핑몰 mall.charmfre.co.kr